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 에너지 산업 발전 기여 광주광역시장 표창

- 산·학·연·관 협력 이끌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지역 특화 에너지 프로그램 통해 광주광역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 인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 보탬 것”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오른쪽)이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신소재공학부 교수)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시장 강기정)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6일(월)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상한 소장은 광주시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시민의 에너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왔다.

‘2024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과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KEET 2024)’, ‘BIXPO 2024 광주 에너지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태양광, 전기차, 분산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광주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위해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에너지 밸리기술원이 주관한 ‘산·학·연·관 기술교류회’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전력시스템, 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광주 지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국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의 책임연구자로서 이상한 소장은 태양광 기반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 기술 연구를 통해 개발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등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다수 게재하며 광주의 에너지 연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산·학·연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및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공헌했다.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한 소장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시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